

## News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우리은행 압수수색

조선일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압수수색에 나서...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김봉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우리은행이 도마에 올라....

### 카뱅 非이자 부문 첫 흑자... 3분기 순익 6배 급증

동아일보

카카오뱅크가 비이자 부문에서 첫 흑자를 내며 3분기에도 흑자 행진 이어가... 3분기 406억 원의 당기순이익 기록....  
주식계좌 개설 신청과 신용카드 모집 대행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비이자 부문에서 분기 기준 첫 흑자....

### 시중은행과 더 격차... 지방은행 '코로나 블루'

이데일리

지방 금융지주와 4대 금융지주의 격차가 더 커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은데다 '빚투' 효과가 시중은행으로 쏠렸기 때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시중은행은 더 싼 금리를 대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계 대출 등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 시중은행, '저금리성 예금' 확보에 집착하는 까닭은?

이코노믹리뷰

국내 시중은행들이 올해 3분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저금리성 예금 카드를 적극 활용.... 예대율과 순이자마진 관리 차원...  
"4분기에도 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줄여 이자비용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연말 보험사 CEO 줄줄이 임기 만료...교체 바람 불까

뉴스1

연말연초에 주요 보험사 CEO의 임기가 줄줄이 끝나... 실적이 악화된 만큼 CEO가 대거 교체될 수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데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매우 빨라져, 이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CEO로의 교체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

### 코스피 첫 입성하는 보험대리점... 흥행 성공할까 관심

조선일보

보험대리점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앞뒀...  
"에이플러스에셋의 코스피 1호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GA들도 상장에 도전하려는 것 같다"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오늘 2차 제재심...결론 날까

뉴스1

금감원은 두번째 제재심을 열어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이날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세번째 제재심....  
증권사 측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 금감원 삼성증권 종합검사 돌입...임원 부당대출 점검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장부까지 확인해볼 방침...  
"단순 업무 실수다. 대출 심사를 할 때는 등기임원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일이 수기(手記)로 하다보니 벌어진 일"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